

제1절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²⁰⁸

1. 문학

울진군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 울진군민의 문학적인 성향 또한 남다르다. 울진 문학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도입으로 근대 문학의 영향을 예외 없이 받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1950년대 전반까지는 근대적인 문학 활동의 가시적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몇 개인이 중앙 문단에 진출해 활동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지역과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활동해 왔으므로 지역 문학에 직접 기여한 측면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해방 이후 울진의 문학동인 활동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은 구체적인 문학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문헌이나 기록물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울진에서의 가시적인 문학 활동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활동했던 초등교사 중심의 망양문학회와 1980년 초부터 1988년 초까지 활동했던 올림문학회, 1992년 8월 지역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울진문학회가 중심이 되어 울진지역의 문학 지평을 넓혀왔다.

2. 음악

1931년 8월 성악가 박모(朴某) 외에 세 사람이 첼로 1개와 바이올린 3개로 순회 악단을 조직하고 부산, 대구를 거쳐 관동팔경을 순방 목적으로 울진에 도착하여 첫날을 제동학교(濟東學校)[1943년 공립울진동국민학교로 병합편입]에서 공연하였는데, 이것이 울진에서 공연된 실내연주회의 시초라 하겠다.

또 이영재(李永在) 외 8인이 1931년 11월 울진 공회당(公會堂)에서 울진 최초로 지방 악사 연주회를 2일간 야간에 개최하였다. 1960년대부터 창설된 울진고등학교의 관악 합주단은 그 음악 교육적 기능과 군민 화합과 위문의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평해공업고등학교[현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에도 합주단이 창단되었는데 재일 교포 중 울진 출신의 금강회라는 모임에서 33인조의 악기를 기증하여 처음으로 관악 합주단이 창단되었다. 그 후 울진고등학교의 합주단과 함께 평해공고의 합주단은 쌍벽을 이루

208.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을 참조했다.

며 발전하여 오다가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적 물적 어려움으로 해단되었다.

현재 울진 군내에 남아 있는 합주단으로는 죽변고의 합주단이 있다. 1992년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학교 육영 사업의 하나로 창단된 이 관악 합주단은 장기태 교사의 지도 아래 4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날, 현충일, 6·25행사, 군민 체전, 군민 음악제 등과 같은 지역의 각종 기념일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울진군의 유일한 합주단으로서 음악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3. 미술

그림을 비롯한 울진의 시각 예술은 우리 고장이 지닌 풍광의 수려함 만큼 인재 육성의 모든 여건이 부족했던 관계로 넓고 두꺼운 저변 속에서 발전해 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매우 훌륭한 화가가 배출되었다.

우리 고장이 낳은 대표적인 화가라면 먼저 유영국(劉永國) 화백을 꼽을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경성 제2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학원 미술과에서 이중섭, 안기풍, 김병기, 문학수 등과 함께 신사실파(新事實派)를 결성하였고, 1957년에는 ‘모던아트협회’에 참여하였다. 유영국은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자연의 제 형태에서 추상에 이르는 한국적 추상의 통념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순수한 기하 형태인 원(圓), 면(面), 선(線)의 제 요소만을 가지고 작업한 작가이다.

1938년 제2회 일본 자유미술전 최고상과 1976년 제21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의 수상 등 많은 상을 받았고 팔순을 넘긴 현재도 그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또, 한상봉 화백이 한국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 외에도 전종술이 한국화에서, 지역에서 김태봉·홍경표·김순이는 구상 작가로 안창현이 조각 부문에서 중견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는 울진미협에서 올해의 작가로 선정한 김경기·김지훈·서정희·신동수·엄계숙·엄순정·홍경표 등과 주인예술촌의 박영열 등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울진 출신으로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김순이·안창현·이호신·임 경·전종술·최소희·한상봉 등이 있다. 지역의 서예가로는 박영교·신상구·윤현수·최준용 등이 있고 이들은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4. 연극과 영화

1) 연극

울진은 1918년에 신파극이 들어왔다. 1918년 6월 울진 면사무소 신축 낙성을 축하하는 여흥으로 최찬식의 신소설 「추월색(秋月色)」을 각본으로 하여 김주익(金周益) 주연으로 당

시 읍내의 풍류인 장덕영(張德永)·이응린(李應麟)·최재수(崔在洙)·장재무(張在武)·임모(林某)·이종태(李鐘泰) 등이 출연하였다.

1920년에는 김우진이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 ‘극예술협회’를 만들었고 1921년 7월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고국에 돌아와 전국 순회공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울진에서도 울진 청년회가 주체가 된 신인극(新人劇)의 공연이 있게 되었다. 1920년 10월 울진읍 7일 시장 개설 축하식[난장]을 계기로 하여 울진 청년회 주최로 미국 아부라함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한 남북 전쟁을 역사극으로 공연하였다.

1925년 9월 황택룡(黃澤龍) 주도하여 ‘울진순회극단’을 조직하였는데, 「그리운 해당화(海棠花) 언덕」이란 공연 제목으로 울진 제동학교 강당에서 2일간 초연한 후 울릉도에서 순회공연을 마치고 강릉을 비롯한 수 개 군을 돌면서 공연하던 중 경찰이 사상 문제로 치안에 저촉된다고 트집 잡음으로써 해산당하게 되었다.

해방 후의 울진연극은 광복을 맞아 각 마을 단위로 광복 축하 소인극(素人劇) 활동이 싹을 틔워 흥미와 관심을 높였으나 전통의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와 상급 학교의 부재로 계속된 발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반공 사상 무장을 위한 반공 연극이 생겨났다. 1950년 6·25전쟁이 터져 젊은이들은 모두 군인으로 출정하고 학생들도 학도 의용대를 조직하여 전선으로 또는 후방 치안 담당병으로 활약하는 한편 민심과 사상의 무장을 위해 연예반을 구성하여 연극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1950년 말경에 전황이 호전되자 울진에서는 평해면 단위[평해, 기성, 온정]의 학도 의용대가 이대연(李大淵)의 주도로 처음으로 연예반을 조직하여 「산을 넘어 강을 건너」라는 반공 연극을 평해, 온정, 후포 주둔군 부대로 순회공연하고 점차 북진하려던 차에 전세의 불리로 더는 빛을 못 보고 무산되었다. 비록 전쟁 중의 학도들의 연극 활동이었지만 해방 후 처음으로 순수 울진 사람이 주축이 되어 면 단위 공연을 시도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연극은 외지에서 온 전문 연예인들에 의한 여성극 정도가 1960년대까지 울진 사람들에게 공연되었다.

2) 영화

울진에 처음 영화가 상영된 것은 1920년의 일이다. 1920년 11월 통천고저자전거상(通川庫底自轉車商) 임우상(任宇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 화보(畫報) 6권과 서양악기를 가지고 와서 2일간 상영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사진의 개시였다.

그리고 녹음 및 천연색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은 1954년 3월 25일 울진문화원에서 서울 공보관(公報館)으로부터 16밀리 영사기를 대여받아 일반에게 상영하면서부터였다. 울진 최초로 녹음된 영화인 「한국의 교육」 상·하권과 총천연색인 「과학미술」 1권을 상영하였다.

울진의 극장은 처음에는 본 군의 울진읍 소유이던 읍내리 소재 문화관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등을 하여 오다가 1959년 군 당국에서 민간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민간 경영 측에 의한 극장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후 울진군에는 울진 극장 이외에 죽변극장과 후포 극장이 개인 소유로 상설되게 되었다. 울진 극장의 경우 2층 건물에 588석 입석 87석 등 모두 합쳐 675석을 갖추고 있었고, 후포 극장의 경우는 최규택 소유로 1·2층 합쳐 좌석 376석 입석 56석 등 모두 423석이었고 죽변극장은 1, 2층 합쳐 좌석 433석 입석 120석 등 모두 553석의 좌석을 갖추었다.

울진의 극장들은 1970년대 초부터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고 1978년 3월 죽변극장이 문을 닫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울진 극장이 폐업하였고, 후포 극장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1985년 8월에 폐업하게 되었다. 그 후 1986년 11월부터 울진읍 읍내 3리에 관람석 120석 규모의 소극장이 생겨나 영화 상영을 해 오다가 폐업했다.

제2절 문화예술 행사²⁰⁹

1. 문학

문학 행사는 울진문학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울진문학회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울진문학』을 발간하였고, 시낭송회와 지역 문화유적 답사, 지역문화제 백일장 주관, 시화전 개최, 중앙문단과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6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 울진문학회와 후원 기관으로 울진저널, 덕구호텔이 함께한 『분단시대 작가정신』이란 주제로 심포지움[강연, 토론회 등]이 있었다.

2. 음악

울진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울진군 음악회가 개최됐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울진군 학생 음악회, 울진군 교사 음악회, 울진 군민을 위한 음악회 등이며, 기타 해군 1020부대 군악 연주회, 벨라 앙상블 초청 음악회, 무의탁 노인을 위한 성탄축하성가제 등이 있다.

2004년도에는 2005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D-365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합

209. 문화예술 분야별 활동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을 참조했다.